

- ◆...平均壽命의 延長으로 高齡인구가 증
- ◆...가함에 따라 近年에는 70代 以上の
- ◆...高齡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 ◆...다. 消化器系統의 질병에 대해서도
- ◆...령자에 대한 연구가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에서 노인층에게 관심을 갖게하는...
몇가지 질병에 대해서 고찰하고자한다...
다.

될때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 조기胃癌으로 발견되어 수술을 받으면 5년간 생존율이 90%이상의 좋은 치유율이므로 조기위암 발견에 노력해야 되겠다.
또한 조기胃癌이 아니더라도 치료법의 발달로 치유율이 향상되었으므로 화학요법을 비롯하여 기타요법을 시행하면 지금까지보다 더욱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능력이 강한 臟器로 알려지고 있으나 가령에 따라 그의 중량이 감소되고 기능도 점차 저하되어서 노령기의 肝의 질병은 장기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년에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의 만연으로 온 국민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있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B형肝炎은 간경색증이나 간암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도 근본적인 치료약이 없으므로 앞으로 간염 또는 간암의 발생률은 증가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초기에 철저한 치료가 바람직하다. 더구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과도한 음주 또는 무분별한 약품의 남용은 간의 장애요인이 되므로 일상생활에서



金鍾敏
〈中央醫大〉
〈內科 敎수〉

고령자의 消化器系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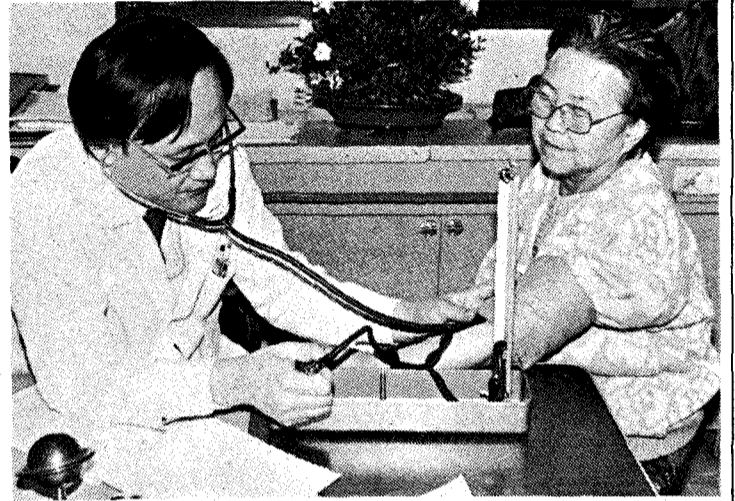
평균수명연장, 高齡인구가 증가 따라 老人病문제되고있다

자극성강한, 뜨거운 음식물·藥物 복용 억제
食道질환증, 食道癌은 60代 이후에 발생률높아

胃炎보다도 임상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궤양이며 이는 良性和 악성궤양으로 大別할수있겠다.

양성궤양은 치료에 잘 반응하여 치유율이 높으나 악성궤양은 암과 궤양이 공존하는형상이므로 초기에 치료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궤양이 장기간의 치료에도 치유되지 않으면 악성을 의심하여 정기적으로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며 치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발의 여부 또는 악성궤양 발생등도 고려하여 정기적인 검사가 요망된다.

노년층에서의 궤양은 청장년기에 비해서 암과의 관련성이 깊으며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胃질환 消化器질환서 가장 많아 胃炎·癌에 注意
단백질·비타민 충분히섭취, 制酸劑무분별하게 장기간服用 삼가

食生活변화로 大腸癌늘어나 關心가져야 腸질환
肝질환 B형肝炎은 국가적차원서 對策강구해야

食道질환

食道는 食物을 胃까지 도달케하는 통로와 같은 역할과 위에 도달한 食物의 逆流을 방지하는 역할이 주라고 할수있겠다.

그러므로 食物, 약물 기타 有害物質들은 식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식도염등의 여러가지 반응을 야기시키게 되며, 가속에 따라 하부식도괄약근의 기능이 약화되어서 산성화된 胃內 食物이 식도로 逆流되어 소위 逆流性食道炎이 발생하여 노령에 이를수록 식도염의 증가경향이 있다.

또한 하부식도괄약근의 수축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져서 소위 achalasia(噴門無擴張症)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때는 食物이 식도를 통과하지 못해서 전신적인 쇠약이 심해지며 악성질환과 감별이 필요할때가 많다.

그러나 이들의 良姓질환보다도 문제되는것은 식도암이라고 할수 있겠다.

食道癌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오는 식도염이 반복되거나 achalasia 등이 있으면 식도암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소화기계통의 癌중에서 식도암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60년대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年代에서 燕下 곤란, 구토등으로 食物의 섭취가 곤란하거나 연한 食物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가 특별한 이유없이 체중의 감소가 있을때는 癌을 의심해야 되며, 또한 식도염이나 궤양의 既往歴이 있으면 더욱 자세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도염등 良姓질환의 철저한 치료와 치료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경과를 관찰하여 자극성이 강한 食物이나 약품의 복용을 억제하고 뜨거운 食物을 먹는 습관은 없애고 조잡하거나 끈은 食物은 연하게 조리해서 먹도록하며 충분한 영양과 vitamin의 섭취가 필요하다.

근년에는 식도경의 발달로 과거보다 早期에 진단이 가능해졌으므로 이에 대한 치료효과가 해마다 향상되고 있으므로 조기발견에 노력해야 되겠다.

胃疾患

消化器계통의 질환중에서는 胃의 질병이 가장 많으며 加齡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胃의 생리적기능이 다양함에 따라 질병의 종류도 다양하나

기중에서 가장 많은 질병 몇 가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한다. 식도의 食物통과시간은 단 시간이지만 위에서의 食物停留시간은 장시간이어서 유해인들의 위점막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서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시킬수 있다. 기중에서 임상적으로 가장빈도가 높은 것은 胃炎이며, 만성 위염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노령기에서는 위축성胃炎, 위축胃가 加齡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을뿐만 아니라 범위가 확대되며 타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더구나 이들 위염은 정상조직으로 환원되기 힘들어서 증상의 악화가 가중되며 위궤양이나 위암등의 소지가 되므로 계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겠다.

즉 胃나 12指腸出血, 穿孔 등이 자주 발생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예가 많으므로 청장년 때보다 신중한 치료가 필요하다. 위질환중에서 고령자에게 가장 문제되는것은 위암이라고 할수 있겠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암중에서 가장 많으며 加齡에 따라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50년전에는 구미각국에서도 위암이 首位였으나 감소되었으며 기타 선진국에서도 감소경향이 있는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암의 발생원인이나 기전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이 있으나 기중의 하나로서 근년에 중요시 되는것은 위축성위염으로부터의 암발생 기전의 하나인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염분 섭취와 胃酸의 부족 또는 無酸狀態에서는 胃內 세균총의 증가와 Nitrite의 증가가 암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암이 발생될것이라는 가설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단백질과 vitamin을 섭취하고 가능한 염분섭취를 제한하는것이 바람직 하겠다.

또한 食物의 조리방법이나 저장과도 관계가 깊다는 보고도 많은것으로 보아 가능하면 이런점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胃酸과의 관계도 동물실험에서는 확인되었으며 인체에서는 확인되지 못했으나 무분별한 制酸劑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진단법의 발달로 초기에 발견할수 있으므로 위염 또는 궤양이 반복하거나 치유가 잘안

腸疾患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적다고 알려지고있는 장질환이 근간에 점차적으로 증가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있는 식생활의 개선과 정신의학적인 요인으로 오는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腸에도 炎症性 질환이 많으며 加齡에 따라 腸운동의 변화 또는 감퇴로 변비양 증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있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설사나 기타 증상을 동반하는 병들은 전신적인 영향이 심하며 질병의 정도보다 諸症狀의 노출이 미미한 때가 있어서 고령층의 증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大腸癌의 증가를 나타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위암 못지않게 대장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대장암의 증가요인 역시 확실히 알려진바는 없으나 근년에 주목되는 보고는 食物의 의 관계로서 肉食을 많이 하는데 비해 섬유질의 섭취가 부족하면 암의 발생률이 높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소위 前癌狀態로 보고있는 장의 염증, polyp 등의 양성종양이 있을때는 예방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육식의 절제와 섬유질이 많이 포함된 食物을 취하도록 노력하는것도 한 방법 이었으며 담낭, 膽道질환과의 관련성도 주목되고 있다.

肝疾患

肝의 기능은 복잡하고 재생

위생적 생활환경, 食物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간질환진단의 기술향상으로 초기에 간기능의 장애를 진단할수 있게 되었으며 간암의 조기발견에도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년에 학계에서는 직경 3cm이하의 소위 微少肝癌의 발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간암직경이 3cm이하는 물론이지만 5cm이하의 암의 수술효과도 상당히 좋으므로 간염 또는 간경색증 기타 간암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이고 철저한 검사가 필요 하겠다. 구미각국에서는 간장이식수술도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앞으로 이 방면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結 論

高齡에 따르는 인체의 생리 적변화를 이해하며 고령자의 질병의 특성을 파악하여 치료해야 소기의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근년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만성중암에 대해서는 前癌疾病의 유무를 파악하여 정기적인 진단으로 초기에 암을 발견하는데 노력하며 食物, 약품등 암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물질을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病에 이환되었다 하여도 의학의 발달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치료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겠다.